

호남권 융합기술 사업화 전문가 양성

전북대, 5년간 국비 24억원 확보... 지능형 기기 분야 교육기관 역할 기대

전북대학교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융합기술사업화확산형 전문인력양성사업(이하 MOT사업·총괄책임자 관대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사업 전환 고부가가치화 실현, DNA 기술 활용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해 기업들이 혁신 성장을 주도하고 융합기술을 사업화하도록 지원하

기 위한 것이다. 전북대는 이번 MOT사업 선정으로 전라도 '지능형 기기, 부품 소재 분야'의 기술사업화 성과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획에서부터 기술사업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체계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 사업 선정으로 전북대는 5년간 국비 24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전북테크노파크, 캠퍼스융합기술원, 전북창

조경제혁신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호남권 융합기술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북대는 학부 졸업생과 기업체 재직자, 혁신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매학기 석사과정 3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단 입학생에게는 선정 기준 충족 시 장학금을 차등 지급한다.

또 혁신리더형(CEO), 혁신관리형(COO), 혁신개발형(TBD)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인맞춤형 인재 양성 트랙과 융합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산학공동 프로젝트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권대규 교수는 "이번 MOT사업을 통해 호남권 융합기술 사업화 전문가를 양성, 지역이 직면한 고용창출 등의 산업 문제를 해소하고 대학, 혁신기관 및 기업체의 융합기술사업화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원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020학년도 '원격수업에 대처하는 스마트한 특수교사' 2차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스마트한 특수교사' 역량강화 연수

원주 특수교육지원센터

원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020학년도 '원격수업에 대처하는 스마트한 특수교사' 2차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총 3차시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전주인봉초등학교 설성정 교사의 진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 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사의 교수·학습 콘텐츠 관련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에게도 온라인 수업으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교사들에게 수업매체를 연구하며 학습지 제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의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해 배워보는 인포그래픽 실습 시간을 가졌다. 지난 1차시 연수에서는 'visual thinking'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배웠고 특히 이번 2차시 연수는 코로나19 사태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온라인 연수로 진행됐다. 강사가 캠 앞에서 줌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진행하고 연수를 희망하는 교사들은 교육청에 오지 않고 각 교실에서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해 강의와 영상으로 만난 것이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사로서 온라인 연수가 처음이었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쌍방향 소통을 통한 원격연수를 실시하면서 교사들이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제작과 컬러 색채 이미지 값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컴퓨터 매체 활용방안 연수를 통해 3차시 연수가 모두 마무리 되면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수업혁신 능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다곤대학, 미얀마 최초 온라인 강의로

전북대, 시스템 구축... 교육환경 개선 공로 인정

전북대학교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단(단장 방국수)이 다곤대학에 미얀마 최초의 온라인 강의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전북대는 방국수 교수(한약자원학과) 중심으로 미얀마 약용식물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 기술보급 사업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업단은 그간 다곤대학에 유용식물센터를 설치해 다곤대학 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도와 산업화 지원을 해왔고, 스마트 강의실과 60명이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컴퓨터 100대와 자연계열 교수들이 500여 권의 전공서적을 기증하는 등의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한 몫 했다. 방국수 단장은 "전북대 대학본부

이번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은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단 내에 있는 ICT융합교육지원팀(팀장 황지원)이 3년 전부터 미얀마 다곤대학 식물학과에 실험실습 교육을 개선한 영상 촬영이 가능한 실험실 구축을 위해 노력한 끝에 이뤄낸 성과다. 현재 90개 강좌가 온라인으로 제작돼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이 영상 자료는 유튜브 'myankorea ODA'에 소개돼 미얀마 현지의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전북대 대학본부가 지난해 재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100대와 자연계열 교수들이 500여 권의 전공서적을 기증하는 등의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한 몫 했다. 방국수 단장은 "전북대 대학본부



전북대학교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단(단장 방국수)이 다곤대학에 미얀마 최초의 온라인 강의시스템을 구축했다.

비롯한 많은 교수님들의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이러한 소기의 성과가 가능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다곤대학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진전화된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위해 전북대와 다곤대학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는 국제협력사업 추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가상현실서 화재진압 훈련 가능해졌다

전주대 김동현 연구팀, 225억원 규모 시스템 2024년까지 구축

전주대 김동현 연구팀(소방안전공학)은 225억원 규모의 '가상현실 소방대원 훈련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구축되는 다자간 통합형 실감 기반 가상현실 소방훈련시스템 사업은 ▲전주대학교가 사업총괄 기관을 맡아 훈련 시나리오 개발 훈련 평가 시스템 및 훈련공간을 구축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AI 소방관 및 훈련 안전시스템 개발, ▲㈜네비웍스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과 MR(Mixed Reality, 혼합현실) 모듈

개발 ▲(주)코어센스는 실감체험을 위한 소방관 방화복 내장형 모션캡처장비와 컨트롤러 등 하드웨어 개발 ▲(주)네트웍스는 화재확산연산 프로그램 모듈 개발하는 등 산·학·연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화재 특성상 실제 불을 내고 훈련을 하기에는 안전사고의 위험과 함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어 가상 훈련과 이미지 훈련 등 CPX(Command Post Exercise, 지휘소훈련)로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

해 다양한 화재 상황과 환경을 가정해 FITX(Field Training Exercise, 현장가동훈련)로 반복훈련이 가능해져 소방대원들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구급할 수 있게 됐다. 김동현 교수는 "지금까지는 여러 환경적 제약으로 효과적인 소방훈련이 힘들었지만 이번 '가상현실 훈련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주거공간, 지하공간, 대형공장 화재 뿐만 아니라 대국민 화재대피훈련을 포함해 총 12종

의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 제천화재(2017년 12월 21일), 밀양 병원화재(2018년 1월 26일), 이천 물류창고화재(2020년 4월 29) 등 예상하지 못한 공간에서의 화재 발생에 대해 소방관들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훈련 방법 개발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있다. 이에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에 3층 규모의 가상현실 첨단 소방훈련장이 공주시 국립소방연구원 부지에 들어설 계획이며, 전국 5만 6000여 명의 소방공무원이 이곳에서 훈련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 Hi-PBL 적용 교과 운영 사전교육

호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6동 3층 회의실에서 Hi-PBL(Howan Industry - Problem Based Learning) 적용 교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실천적 능력을 높이는 Hi-PBL 구성전략'이란 제목으로 2020학년도 2학기 Hi-PBL 적용 교과목에 대한 실질적인 수업 설계 및 운영 방안 등의 안내가 이뤄졌다. Hi-PBL은 4차 산업혁명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문제 해결역량을 갖춘 현장 친화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PBL 교수모형을 활용한 호원대만의 차별화된 교육 모델이다. 지난 학기 시범(Pilot) 운영을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의 학습 성과 및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호원대만의 교수

모형을 개발했다. 김은정 센터장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4C(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창의력)역량을 총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교육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성 총장은 "우리 대학은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도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현장 중심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혁신에 모든 구성원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CTL)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 Hi-PBL과 더불어 K-MOOC 활용 교과 운영, 플립러닝 교수법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